

장르화하는 '30년대' -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2000년대의 표상

나미가타 쓰요시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연구원 조교수)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연구원 나미가타 쓰요시 조교수의 세미나가 4월 4일 오후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장르화하는 「30년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2000년대의 표상'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나미가타 선생님은 2000년대 영화, 소설 등에서 나타난 과거에 대한 레트로(Retro), 노스텔지아와 과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의문을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회고취미가 나타나고 있다. 치킨라면이 탄생한 1950년대를 모델로 내부를 꾸민 라면박물관과 전후의 풍경을 그대로 차용한 전시물이 큰 인기를 얻었다. '회고'라는 단어가 중심화재로 떠오른 시대 역시 2000년대이다. 당시를 경험하지도, 이제껏 본 적도 없는 세대가 쇼와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고 '그립다(懐かしい)'라고 말하고 '마을 살리기 운동(町おこし)' 가운데는 쇼와시대의 풍경을 그대로 보존하려 한 후쿠시마현 아이즈의 '쇼와30년대촌' 만들기가 계획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과거를 회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이 쇼와30년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스텔지아 현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올웨이즈 3번가의 석양』(원제:Always 3丁目の夕日)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도쿄타워가 조금씩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당시의 상징적 상품인 홀라후프, TV, 냉장고 등을 등장시켜 쇼와30년대를 세밀하게 재현하였다. 동시에 현재는 퇴색되어 버린 인정,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의식, 이후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된 힘(元氣)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쇼와30년대는 과거적인 인간관계와 물질적인 풍요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이미지로서의 향수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으로 사고와 공해가 급증했던 것처럼 현실과는 동떨어진 창출된 이미지는 아니었을까? 리리프랑키의 소설 『도쿄타워』 역시 TV 드라마화하는 과정에서 쇼와30년대에 초점을 맞춰 보여주는 등 특히, TV에서 쇼와30년대를 시대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계속해서 다뤄졌지만 역시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족, 공동체의 따뜻함과 '기즈나(絆)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는 달리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도 등장했다. 오사카의 아파치족을 등장시켜 도쿄의 분위기를와는 또 다른 풍의 30년대를 재현한 작품, 히로시마 원폭의 후세대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어나가는가를 표현한 작품 등. 영화 『신상』(信さん)은 쇼와30년대 후쿠오카 탄광촌의 이야기를 여타 영화와는 다른 전개방식과 현실표현을 통해 30년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쇼와30년대가 따뜻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높았던 시대라면 공동체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의 발현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00년대 한국 문학 작품에서 그려진 1930년대는 '콜로니얼 모더니티'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작품에서 당시 경성의 번성한 도시문화가 그려지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 바라본 1930년대는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였던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 모던걸, 모던보이의 도시생활상을 연애물, 탐정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근대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은 문예

작품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구 사업, 1930년대 경성의 유흥문화 공간을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성 복원 움직임은 역사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 문화 등 예능산업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193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미가타 선생님은 한국의 1930년대 연구는 이제부터라는 인상이라고 지적하고 그 시작은 역사에 대한 향수였지만 식민지의 도시문화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로 다시 돌아가 역사를 보려는 시각과 공업화와 발전 간의 관계 등도 다루어져 앞으로의 연구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질의응답>

문: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일본의 쇼와 30년대의 표상과 학술적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1930년대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문화적인 문제로서 노스텔지아라는 것은 그것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박정희시대를 회상한다든지 이승만시대를 회상한다든지 전후의 동시대를 회상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왜 1930년대를 주제로 설정한 것인가?

답: 한국에서 학술적인 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본에서 1950년대를 회상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과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의 1930년대를 연구한다는 것은 현재 1930년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구이거나 대중문화이거나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였다. 중요한 것은 제로년대에서 바라본 1930년대와 쇼와30년대라는 관점이다. 아마도 동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부분이 1930년대이므로 본 발표에서는 이 시대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문: 왜 제로년대의 일본인에게 쇼와 30년대가 매력적으로 보였는가?

답: 쇼와30년대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 즉 버블이 끝나고 존재를 부정당할 수 있는 세대에게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당시를 회상하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하며 인정하는 내용이 그러한 작품의 히트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쇼와30년대에 단카이세대(団塊世代)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을 감정 이입시킬 수 있는 캐릭터가 작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공감하기 쉬웠을 것이다.

문: 영화는 그 당시는 못 살고 어려웠지만, 이후에 고도성장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실도 괴롭고 앞일도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적인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적인, 현실을 전도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 전형적인 예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 생각에 동의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났지만 잃어버린 10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의식도 깔려있었다. 쇼와30년은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좋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의식이 있었던 시대였다. 따라서 희망적인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제로년대에 맞는 내용으로 쇼와30년대라는 설정의 영화가 나타났는지도 모르겠다.

문: 경성의 복원은 역사의 복원인 동시에 역사의 은폐이기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무엇이 은폐, invisible 되어 버렸는가?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은 전태일로 대표되는 60년대의 어두운 노동 환경을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구축하려는, 즉 역사를 은폐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느꼈다. 경성의 복원 과정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작품을 읽고 개별적으로 느꼈다기보다 콜로니얼리즘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를 접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콜로니얼, 모더니티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일본의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식민지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에 탄스홀을 許하라』의 번역본을 읽고 느낀 점은 1930년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서울에 그러한 도시문화가 번창했다는 것을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잘 보여주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식민지의 암울한 역사는 피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연결되는 이야기가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었다.

문: 영화나 소설 등은 과거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발표와 토론은 표상에 대한 것으로 역사적 문제를 리얼하게 도입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서울에 탄스홀을 許하라』와 『연애시대』 같은 작품은 식민지시대는 항상 어두운 것이라는 민족적, 역사적인 서술, 인식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도 경성을 화려하고 좋은 것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내셔널 히스토리를 거부할 수 없는 대중적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답: 일본에서도 쇼와 초기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모던보이, 모던걸의 시대라는 인식, 또 그러한 이미지는 도쿄의 정말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